☆ 컬 럼 ☆

"저가 죽었으나 …"

구 본 규
(김해, 대저제일교회 담임 목사)

8·15가 되면 맵고도 매운 신앙의 사람 손양원 목사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된다. 서릿발 같은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고, 뼈속까지 사무치는 감방의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목사님께서 오르내리던 애양원 교회며 두 아들을 앞세우고 고요히 잠든 목사님의 묘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노라니 마음이 숙연해지고 새삼 부끄러운 생각만 든다.

"손양원 목사님이 지금 살아 계신다면 …"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지금의 세상이 너무나 변했기에 하는 말이다. 손 목사님 같은 분이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 진짜가 인기가 있겠는가 하는 우려에서 뱉는 말이다.

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기 전에 언제나 명심하였다고 하는 7 개조를 생각해 본다.

1. 하나님의 지능을 의뢰하고 나의 지(知)를 믿지 말 것.
2. 주님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를 나타낼까 삼가 조심할 것.
3. 성경 원리를 잘 모르고 내 지식대로 거짓말 되지 않게 할 것.
4. 간증시에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거짓말 되지 않게 할 것.
5. 나도 못 행하는 것을 남에게 무거운 짐 지우지 말 것.
6. 내 한마디 말에 청중의 생명이 좌우되는 관계가 있음을 깊이 알고 말에 조심도, 열심도, 충성도, 다할 것. 이 한 시간 내 성경 말씀 한마디에 사람의 영혼의 생사가 좌우되는 것 잘 생각해야 된다. 지옥에서 끌어 올리게도 내리게도 되니까.
7. 음식과 물질에도 크게 주의할 것이니,

(1) 주님 대신 받는 대접이므로 대접 받을 자격이 있는가 살피라.
(2) 배를 위하여 입맛에 취하여 먹지 말고 일하기 위하여 먹으라.

(3) 물질 선물에는 하등의 관심을 두지 말 것이다.

결론. 오 주여 이 한 시간에 주 앞에서 범죄하지 말게 해 주시고 사람 앞에 비 없는 구름 같이 은혜 못 끼치고 돌아갈까 주의하게 하소서. 또 내 유일한 참고서는 오직 성경 66 권이 되게 하시고 교수의 지능은 오직 기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람의 지능을 믿는 정도가 아니고 컴퓨터가 설교 작성을 대행해 주고 때로는 비서진을 동원해서 설교의 원고를 작성한다고 하는 이 시대가 아닌가.

부흥회 때 자기를 나타내는 정도가 아니라 신문 지상에 대문짝 만하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온갖 병 다 고친다, 방언을 하게 해 준다, 복을 받게 해 준다,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준다고 계속 선전 광고를 하는 사람들, 배우가 되어서 청중을 웃기고 울리고 호주머니를 털어 바치게 하는 사람들 이것뿐만도 아니다.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라야 인정해 주는 이 세상. 목사보다는 박사를 알아주기에 가짜 박사 중에는 목사가 더 많은 한국 사회의 현실이 아닌가.

성경 말씀을 읽기는 하였으나 이야기로 판을 치는 것이 부흥회가 아닌가.

너도 간증 나도 간증 하는 통에 나중에는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예수님은 간 데 없고 자기 자랑으로 끝을 내는 간증 집회.

많이 모이고 사례 많이 받을 수 있는 곳만 골라서 다니는 부흥 강사, 아예 사례금부터 흥정을 해 놓고 적게 주는 곳에는 가지 않는 부흥 강사, 일급 호텔에 잠을 자야 하고, 최고급 요리를 먹어야 하고, 비행기표 사 주고 심지어는 속 내의까지 사다 바쳐야 하는 강사님들이 아닌가.

부흥회를 인도하는 중에도 여자 신도들을 유인하여 음행을 하는 강사도 있다고 하니 매스꺼워 견디기가 어렵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성자가 오늘날 살아 계신다고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한국 교회의 성도들을 이 모양으로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순교자들처럼 바로 가르치지 못한 목회자들의 책임이 중하다. 옛날의 평신도 숫자나 거의 비슷할 정도로 목회자들의 수가 계속 늘어만 간다. 옛날의 교회 숫자를 따라 잡는 신학교, 거기서는 무엇을 가르치기에 이 모양일까?

부흥사를 길러 내는 연수원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고 싶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방언을 가르치는 학원이 있다고도 하는데 거기서처럼 흉내내는 방법을 배운다고 하면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부흥사가 청중을 가지고 노는 방법을 배워서 그대로 써먹는 배우들이라고 상상을 해 보면 평신도들이 불쌍하기만 하다.

교인들도 문제다. 아멘 아멘 하며 받아 먹기만 하고 고요히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니 어느 것이 좋은 꼴인지를 분간하지 못한다. 시중에 나도는 설교 테이프라는 테이프는 다 사가지고 듣고 부흥 집회라고 하는 집회는 다 다니고 해도 고요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상실하고 만다.

순교자 유가족들에게 따뜻하게 밥 한그릇 대접하지 못한 주제에 순교자들의 이름이나 팔아 먹고 사는 우리들이 아닌가? 순교자 유가족들에게 물어보자. 요새 사람들처럼 생각한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게 죽었다고 할는지 모른다. 너무 바보였다고 할는지 모른다. 순교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사는 것이 오늘의 세태라고 말한다면 크게 지나침일까.

일천 기백만 성도를 자랑하는 한국 교회가 언제 장성(성숙)한 교회가 될지 한심하다.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니는 가짜들보다도 진짜 주의 종들을 알아주는 교회가 되는 날은 언제일는지. 수단 좋고 정치성 많고 인기가 있어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고 영웅처럼 큰소리치고 호령하며 교인들을 졸병들 부리듯이 부리고, 호의호식하고 호화롭게 사치스런 생활을 하는 가짜들보다도 양같이 순하고 진실하고 겸손하며 말씀대로 살고 바로 가르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진짜 주의 종들을 알아주는 교회가 되는 날은 언제일는지.

무슨 부흥사회, 무슨 선교회, 무슨 협의회 하면서 서로서로 소개해 주고, 서로서로 돌아가면서 교회마다 부흥 집회를 인도하여 교인들의 헌금이나 노리는 무리들, 무슨 집회, 무슨 대성회에도 언제나 그 얼굴들이 판을 치는 약장수 모양의 떠돌이 패들보다도 주님이 맡겨 주신 양떼나 부지런히 살피고 눈물 쏟아 기도하는 진실한 주의 종들을 알아주는 교회가 되는 날은 언제일는지.

손양원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합분한 묘에 묻히고 그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은 그 앞에 나란히 묻혀서 차라리 확 트인 망망 대해를 바라보고 있다. 한국 교회의 현실을 외면이라도 하듯.

수년 전에 다녀간 일이 있기는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언제 와 보아도 순교자의 신앙은 가슴을 뜨겁게 하고 눈시울을 적시게 한다.

손 목사님의 묘를 뒤로하고 다시 교회쪽으로 나오니 안내하는 어떤 여자 청년이 방명록에 사인을 하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내 이름 석자를 적어 놓고 손 목사님 기념관 건립을 위한, 손 목사님에 대한 테이프를 사 가지고 차를 타고 오면서 들어보니 흐르는 눈물 그것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렇다. 그대로 두면 아득한 옛날 일로 아지랭이처럼 아물아물하다가 잊어버리고 말 이 동산, 그렇다고 해서 기념관을 웅장하게 세워 놓고 나면 또 어떤 구경거리로만 전락되어 버릴까 싶은 노파심도 일어난다.

진실로 그러하다. 사람은 죽어도 그의 신앙은 죽지 않고 살아 있다. 사람이 살아 있을 때는 그의 가치를 잘 모른다. 무덤에 들어간 다음 아무 말도 없을 때, 신문에도 TV에도 광고를 못하고 배우처럼 인기를 발하지도 못하는 때 무슨 불의 사자니, 권능의 종이니,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의 위대한 주의 사자니, 세계를 주름잡고 다니는 부흥사라느니 하는 이름들이 사라진 그 다음에도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진실한 주의 종, 존경받고 사랑받는 주의 일꾼이라야 되는 것이다.

성경은 아벨에 대해서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히 11:4) 한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 그 분은 갔으나 그 믿음은 길이길이 말하여질 것이다.

알 림!

그동안 모아 둔 다음의 고서(상품으로선 손색이 있으나 읽는 데는 무난함)들을 필요한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코자 합니다.

직접 오시든지, 지방 거주자는 화물 도착지와 주소, 성명만 알려 주시면 보내 드립니다(선착순, 미자립 교회 교역자에 우선).

하나님의 주권	문화의 성장 과정	종교와 문화의 관계
불멸의 생명	소요리문답 강해	현대신학 해설
성경의 영감과 정경	구약총론	초대교회 100년 성장사
토인비	칼바르트	신약과 비평
불트만	구약 개론	하나님의 나라
폴 틸리히	주일의 참뜻	성 령
그리스도와 인생 문제	신약 역사	장로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
선교의 동기와 목적	다니엘서의 메시야 예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이단 종교 비판	목회학	설교자상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인도	

개혁주의신행협회 (주소· 전화는 본지 103쪽 참조)